사바세계의 참된 교체 음성에 있어

〈教體〉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㉜ 음성교체(音聲教體)

〈원문〉 "제가 지금 세존께 사뢰옵나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하시니 이곳의 참된 교체(教體)는 음성에 있나이다. 삼마제를 취하고자 할진대 진실로 듣는 것(聞)으로 들어가야 하리니,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을 얻은 이는 관세음보살이 진실하나이다. 항하사겁 중에 미진불국토에 들어가면서 큰 자재력을 얻어 무외로 중생에게 베푸나이다. 묘음이며,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며, 범음이며 해조음으로, 세간을 벗어나서 세상을 구하여 다 안녕케 하고 세간을 벗어나 항상 머물을 얻게 하나이다. 제가 지금 여래께 여쭈옵나니, 관세음보살이 말한 바와 같이 비유컨대 사람이 조용히 있는데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치거든 열 곳의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듣나니, 이것이 곧 원통의 진실이옵니다."

〈강해〉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는 말이다. 25원통 중에 왜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으뜸인가 하는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다. 우선 부처님이 출현하신 사바세계가 음성교체(音聲教體)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체가 세계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향(香)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고, 빛(光)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으며, 말 없는 묵언(默言)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교체는 알아듣도록 의사소통을 시키는 수단이다, 사바세계는 말로써 의사소통의 수단을 삼는다는 말이다. 삼마제를 취하려면 들음(聞)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근(耳根)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을 얻었으므로 원통교주(圓通教主) 혹은 원통대사(圓通大士)라 부르기도 한다.

"원통교주는 항상 보타락가산에 머물며 인연 따라 어김없이 감응하시네. 불난 집에서 미혹한 이를 구하고 버드나무 가지로 물을 뿌리니 한 방울로 하늘 끝까지 적시시네."

관음예문(觀音禮文)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이타원력(利他願力)을 찬탄하는 말이다. 경에서는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항하사겁 중에 미진수 불국토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큰 자재력을 얻어 무외로 중생에게 베푼다는 것은 32가지 몸을 나타내는 응신과 14무외를 말한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대표하는 3대 보살이 문수, 보현, 관음이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며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눈(眼)이다. 보현은 행원을 상징하며 발(足)의 역할을 한다. 관음은 자비를 상징하며 손(手)의 역할을 한다. 관세음의 이름이 가진 뜻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다. 이는 음성교체와 관련이 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묘음이고 관세음이다. 범음(梵音)은 청정해서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래 범(梵音)은 범천(梵天)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인데 청정한 소리라는 뜻이다. 또 불교 수행을 두고 말할 때 범행(梵行)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여기서도 범은 청정을 뜻하지만, 행자를 붙여 말할 때는 욕망을 여의고 음심을 끊어 금욕하고 수행하는 것을 범행이라 한다. 〈화엄경〉의 품 이름에 '정행품'이 있고 '범행품'이 있는데 정행(淨行)은 중생을 위한 이타원력이 들어 있는 행을 말하고 범행은 계율을 잘 지켜 엄격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장아함경〉에 범행을 완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 나온다. "믿음이 있고 계행도 있으며, 들은 것이 많고 설법도 잘하며, 능히 대중을 보살피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법을 설하며, 선정을 성취하고 8해탈에서 역순으로 노닐며, 번뇌를 버려 번뇌 없음을 이루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성취하여, 현세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성립되어 할 일을 다 해 마쳐, 다시 존재의 형태인 유(有)로 태어나지 않으면 곧 범행이 갖춰진 것이다." 이는 곧 범행의 완성이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조음이란 조수(潮水)의 시간이 일정한 것처럼 때를 맞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관하는 덕으로 중생제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여 한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상락아정' 경지를 누리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㉜ 바라밀

5지 난승지에서는 생멸심이 일으키는 번뇌에 대해 거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다. 6지 현전지에서는 생멸심이 중간 반야해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7지 원행지에서는 반연 중생들을 제도해서 현전지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8지 부동지에서는 진여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불퇴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9지 선혜지에서는 암마라식을 제도해서 육근원통을 성취하는 것이다. 10지 법운지에서는 생멸문 전체를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10지의 절차를 통해서 보시 바라밀과 지계바라밀이 함께 성취된다.

다음은 인욕바라밀이다. 범부의 인욕은 참는 것이다. 의지를 통해서 의식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범부의 인욕이다. 수행자는 의지를 내세워서 인욕을 행하지 않는다. 의식 · 감정 · 의지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본성과 각성, 밝은성품에 머물러서 인욕을 행한다. 아라한과에 들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때가 인욕바라밀이 완성된 것이다. 생멸심을 여의고 진여심을 돈독하게 지켜가는 것이 인욕바라밀이다. 생멸수행의 인욕은 사다함과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라한과에서 완성된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분리시키면 인욕바라밀이 시작된 것이다. 멸진정에 들어가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욕바라밀이 완성된 것이다. 진여 수행의 인욕은 보살도 전체 과정에서 행해진다. 보시바라밀과 지계바라밀을 투철하게 행하면서 일체의 생멸심에 물들지 않는 것이 보살도에서 행해지는 인욕바라밀이다.

다음은 정진바라밀이다. 정진은 쉼 없이 나아간다는 뜻이다.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먼저 두 가지 갖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감의 방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초선정에서부터 9선정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멸수행의 정진바라밀이 행해질 수 있다. 고요함과 편안함에 대한 기쁨을 얻어야 한다. 대적정처와 대적멸처를 놓고서 그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정진 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 진여수행을 놓고서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보살도와 등각도에 대한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초지보살은 열반상에 머물러서 정진심이 미해진다. 5지 난승지에서도 정진심을 놓아 버릴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다. 선혜지를 얻었을 때도 원통식에 만족해서 9지 보살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등각도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은 선정바라밀이다. 선정(禪定)은 정(定)의 주체를 세워서 점차로 진보시켜가는 것이다. 정(定)의 주체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세워진다. 첫 번째 조건은 몸을 도구로 해서 세워지는 자리이다. 두 번째 조건은 마음 상태이다. 정의 주체가 세워지는 자리를 기점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단(壇)이라고 한다. 정의 주체로 세워지는 몸의 기점은 12개가 있다. 정의 주체로 세워지는 마음 상태는 13가지가 있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초선정(初禪定)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적정(大寂定)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선정에서부터 6선정까지는 대적정 이전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대적정 이후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그것이다.

처음 대적정에 들어간 상태를 수다원이라고 한다. 진여수행의 선정바라밀은 13단계의 절차가 있다. 보살도 10단계, 등각도 2단계, 묘각도 1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㉜ 생멸하는 것

지혜는 환술에 속지 않는다

선지식이 전하는 말길을 따라 수행을 지어가다보면 이런저런 아리송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참구하게 되는 여러 선어(禪語)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접하는 표현에는 '둘이 아니다.',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아님도 아니다.' 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양 짓지 않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도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못 본 것이냐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다. 보고 안 것은 틀리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이다. 만약 그것에 대해 지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지칭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어떤 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틈이 없다.

당연히 상대가 존재하지 못한다. 상대가 없으니 보았다고도 알았다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상대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없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다.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 같지만,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것이다. 이때 알지 못하는 입장과 아는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앎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틈이 남아있다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다. 이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항상 '나'를 동반하게 된다. 틈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 이때는 '나'를 동반하지 않는다.

'나'가 있는 앎은 온전한 앎이 아니다. 그 앎은 '나'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나'가 없는 앎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안다는 마음도, 모른다는 마음도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고 한다. 이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니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한때는 눈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어찌 보면 안과 밖을 보지 못하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눈을 뜨면 안과 밖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한다. 만약 안과 밖이 있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나'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줄 알아야지, '나'라는 것으로 의문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결하려 하면 생멸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해결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생멸이 생겨날 수가 없다.

"여래장(아뢰야식)은 착함과 착하지 못함의 인연으로서 육도 중생의 생사 인연을 창조할 수 있네. 비유하자면 뛰어난 마술사처럼 각종 사람과 사물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시킨 각종 사물에는 나도 없고 내가 만든 사물도 없는 것과 같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 해결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나'는 실재일 수 없는 '나'이다. 그저 이름으로만 불리는 '나'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 '나'는 존재하는 '나'가 아니다. 그러니 그 '나'는 생멸할 수가 없다. 우리의 본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낌으로 느낄 수 없고, 의식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실재하지 않는 '나'는 실재하는 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온전히 알 때, 만물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어떤 움직임도 아니고 움직임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고 있는 지혜이다. 그 지혜는 반응도 없고 반응하지 않음도 없다. 그저 지혜만 있을 뿐이다. 이 반응하지 않는 지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혜를 나타내어 대상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과 느낌과 의식의 세상인 허상에서 잘잘못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 해결은 인과의 과정이다. 그 인과는 옳고 그름이 없다. 나고 사라짐도 없다. 반복되는 어리석음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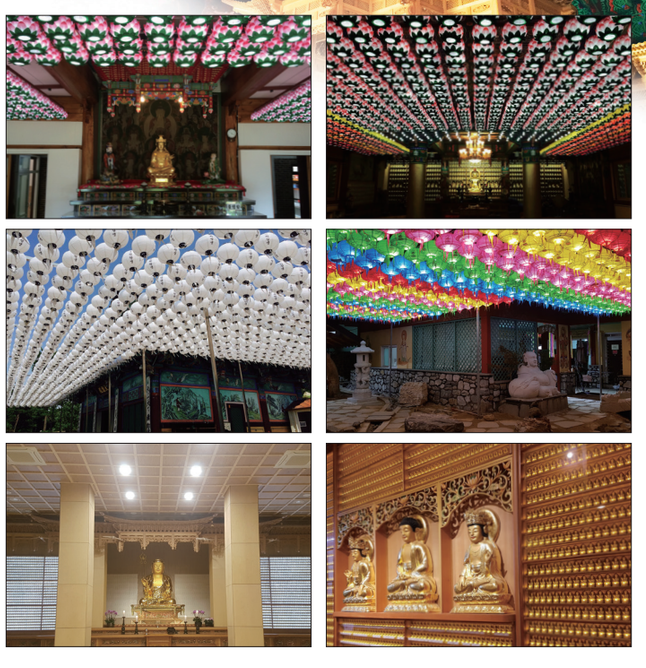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